

관광객 몰려오는 여수 숙박시설 크게 늘었다

여수시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



지난해 건축허가 5.6배 급증... 투자자 문의 줄이어 관광수용력 1등급 지자체 선정 등 지역경제 활기

“1300만” 관광객이 여수시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 유입 효과에 힘입어 숙박업소 등 관광 인프라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4건 203실이던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가 지난해 53건 1136실로 전년보다 5.6배 증가했다. 지난 2012년에는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가 13건에 384실이었는데 다음해인 2013년에는 2건 16실까지 떨어졌었다. 지난해 여수시 전체 건축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22% 늘어난 603건으로 지역 내 건축경기도 활성화되고 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이후 높아진 인지도와 전국 최초의 해상게이볼가 개통, 국내 최초 유럽형 천정 개방형 2층 도심투어 버스, 시티투어와 레일바이크, 열기구, 여

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 등 관광 기반이 확충되면서 여수에 숙박시설 건축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나아지고 특급호텔 등 관광인프라 등이 대폭 개선되면서 기존 관광객원과 신규 관광객이 더해져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점도 숙박시설 투자자 증가 등을 이끌고 있다는 게 여수시의 설명이다.

박람회 이전만 해도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5~6시간 정도 소요됐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KTX 개통으로 현재는 승용차 3시간 30분, KTX는 3시간으로 단축됐다.

여수시는 이 같은 효과로 지난해 9월 열린 2015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드 시상식에서 부산과 속초, 통영 등을 누르고 ‘해양관광 도시부문’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내기도 했다.

여수시는 숙박시설 증가가 여수의 관광객 수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숙박시설 및 각종 건축 허가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건수도 늘어나는 등 숙박시설 건축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연간 방문객 1300만 명을 돌파한 여수 관광의 저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에서 여수시는 경주, 속초 등 9개 시·군과 함께 관광수용력 지수 1등급 지자체로 선정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의회 사무국 직원들 명절맞이 사랑나눔 ‘훈훈’



여수시의회 사무국직원들이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따뜻한 명절맞이 사랑나눔을 펼쳤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여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홀로가정을 방문해 쌀, 라면 등 생필품과 직원 성금 등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 나선 시의회 사무국 직원 32명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독거노인 등을 위해 집안청소와 주변 환경정비 등 따뜻한 나눔 활동도 진행했다.

정체민 여수시의회사무국장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칼텍스 임직원 1600여명 연중 헌혈 캠페인 나서

여수지역 대표기업인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부회장)가 연중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1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1600여명 여수공장 전 임직원들이 국가적인 혈액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연중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미뤄졌던 수술들이 이어지면서 혈액 사용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최근 한파 영향으로 헌혈자는 대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밝힌 적정 혈액보유량은 일 평균 5일분 이상이지만 현재 B형(5.9일분) 기준치를 넘었고 나머지 A·AB·O형(2.8~3.7일)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처음 시작된 헌혈 캠페인에서는 임직원 40여명이 여수공장으로 파견나온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



GS칼텍스 여수공장 직원들이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올라 헌혈에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동참하는 직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앞으로도 사내 게시판 캠페인 알림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형순 GS칼텍스 전무는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감안해 임직원들이 전사적인 헌혈 캠페인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며 “직원들의 사랑이 담긴 헌혈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해수청, 국내 유일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확장 이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국내 유일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일 여수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최근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항로표지기술협회 박찬재이사장, 정복철 여수해수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유일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확장 이전식을 가졌다.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처음 문을 연 이후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교육과정에 지금까지 617명의 민·관 교육생을 배출했다.

여수해수청은 기존 교육장의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현장 교육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비좁고 낡은 교육장 건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여수시 화양면에서 국내 유일의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확장 이전 기념식을 했다.

인근에 증·개축해 이전했다. 정복철 여수해수청장은 “국내 유일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확장이 전문교육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전한 해양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시민 자전거보험’ 도내 최고 보장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까지

여수시는 1일 “7년 연속 여수시민과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에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남도내 최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전거 이용자는 최고 2000만원, ‘여수랑’ 이용자는 사망 및 후유장애 사고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고 15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도내 타 시·군의 보장금액보다 최대 2배 높은 보장금액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브랜드사업인 ‘두 바퀴로 힐링하는 명품 여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혜택으로 자전거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는 자전거사고 후유장애·위로금으로 128건에 460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설연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여수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기간 내내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을 위해 오동도 주차장 등 유료 공영주차장 19개소를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연휴기간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인 여수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동도 주차장 무료개방 등으로 설 명절기간 주차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명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